

세계가 주목한 조선의 사립 교육기관

한국의 서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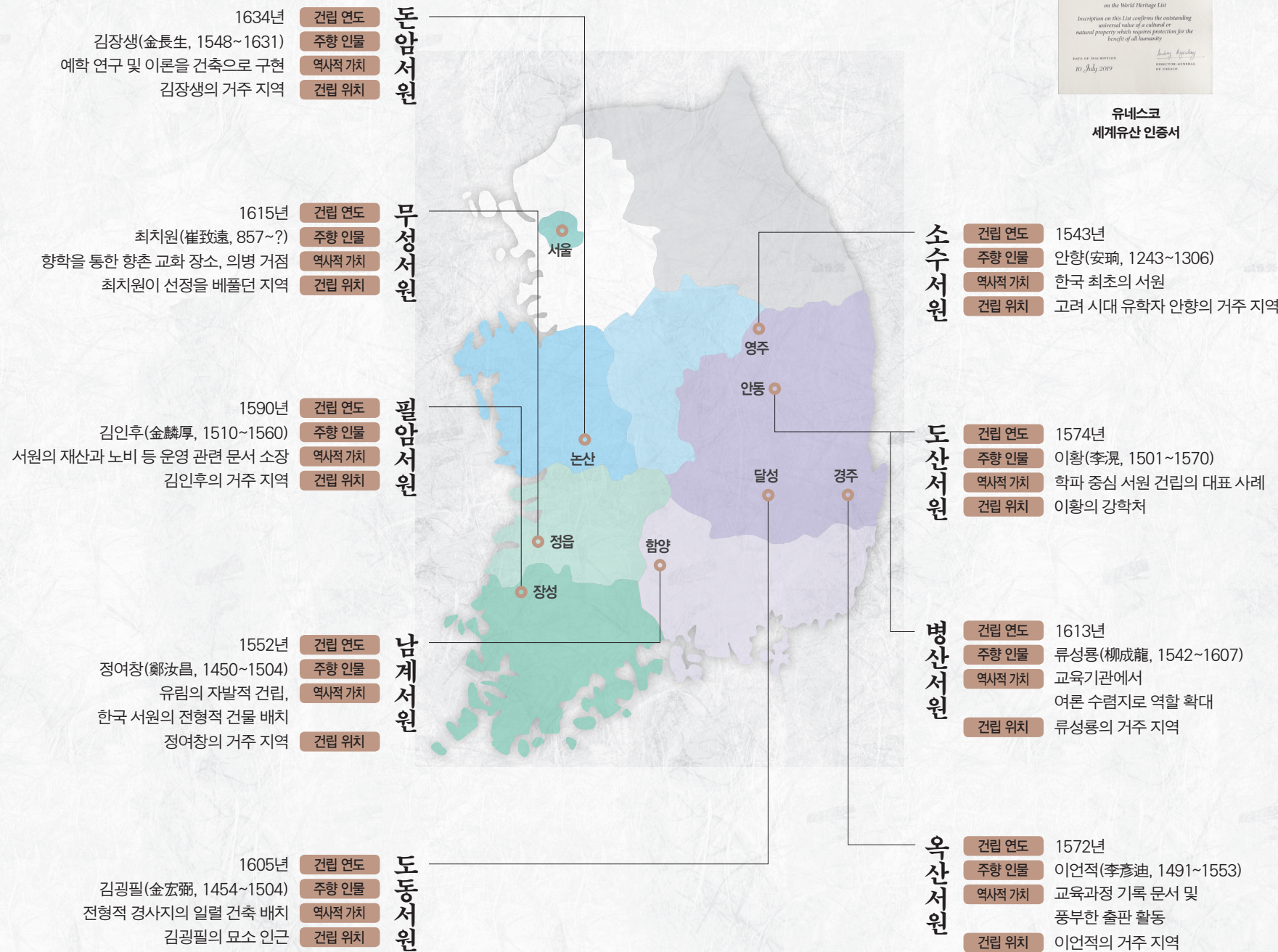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 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670여 개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9개 서원이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연속유산으로 구성된 9개 서원은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물론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사례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성리학자들은 강학과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였고, 정기적으로 제향*을 봉행해 학파의 결집을 도모하였으며, 교류와 유식*을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 활동을 주도하였다.

- *성리학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
- *제향 서원과 관련된 선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식
- *유식 자연 속에서 수양하고 휴식하는 일로, 성리학을 배우는 과정의 하나

서원의 공간구성

서원은 제향 인물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성리학자의 전인적 교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선택하였다. 서원 내부는 제향을 올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 위치한 제향 영역, 유생들의 공부와 숙식을 위해 지은 건축물이 들어선 강학 영역, 서원 관계자들 모임과 유생들 휴식을 위한 교류 및 유식 영역으로 나뉜다. 성리학자들은 지형과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의 서원 건축 전형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서원’ 위치와 특징



9개 서원의 특징

영주 소수서원 紹修書院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함양 남계서원 濫溪書院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 사림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배치 형식이 처음 등장했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상에 배치한 형식은 이후 건립하는 서원의 모범이 되었다.



경주 옥산서원 玉山書院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 내에 교류와 유식 기능을 하는 누마루 형식의 무변루를 건립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건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안동 도산서원 陶山書院

이황의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건립되어,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입증한다. 강당은 특이하게 4칸 구성이며, 대청 서쪽에만 방을 두어 비대칭을 이룬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일대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다.



장성 필암서원 華巖書院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서원 건립이 호남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 지형을 이용하던 것과 달리, 이곳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형식을 적용하였다.



달성 도동서원 道東書院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해 서원의 경사지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안동 병산서원 屏山書院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론장으로 확대해 사림 활동 중심지로서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누마루인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정읍 무성서원 武城書院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성리학 이념이 확대된 서원의 양상을 보여준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교육을 통해 향촌에 뿌리내리고자 한 홍학처에 설립되었다.



논산 돈암서원 濂巖書院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논하던 서원으로, 응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관련 저술이 출판되었다. 응도당은 동아시아 건축 이론을 예학 이념과 결합하여 완성한 건물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상세 정보



영상으로 만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http://k-seowon.or.kr

제작 지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 사회적 확산을 주도한 교육기관이자 무형적·역사적 독특성의 탁월한 증거다. 성리학자들은 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을 완성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지역의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후세대에 본보기를 제시하고 강학을 통해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학맥을 형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서원을 사회 교화와 정치 등 각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면서 성리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원의 주요 기능

-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이상적 지식인 양성
-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를 사표로 삼아 제향
- 지역사회 공론 형성

건축물의 조화와 위계

서원은 제향과 강학,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사우, 강당, 누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들 각 영역은 지형, 외부 공간, 기단, 담장, 대문 등을 통해 건축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조화를 이루었고, 각각의 건물이 가지는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계*를 부여하였다.

*위계 건물의 우선순위를 중시하여 위쪽에 두거나 중앙에 두는 등의 질서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영상으로 만나는 소수서원



역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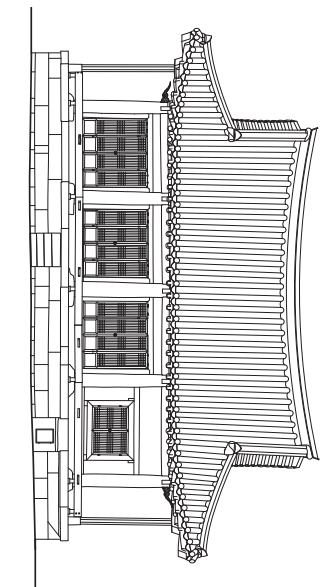
소수서원은 화헌(華軒) 안향(安祥)을 기리기 위해 1543년에 건립한 현구 최초의 서원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 말 성리학을 들어온 순흥 출신 안향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시고, 강당을 건립하여 백운동서원을 세운 후 유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항이 건의하여 1550년(명종 5) 왕에게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소수는 '학문을 이어서 닦는다'라는 뜻이다.

제향 인물 및 의미

서원 입구의 당간지주는 이곳에 속수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동쪽으로 죽계천이 감싸는 수려한 곳에 자리 잡아 자연을 서원의 한 요소로 삼았다. 입구 쪽 경림정 맞은편 바위에 '경학'자를 새겨 자연을 감상하며 성리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였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강당인 강학당이 동쪽을 향해 서 있다. 강학당의 사액 현판 글씨는 명종의 친필이다. 서원 임원의 집무실과 숙소는 두 채의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일신재와 직방재라는 이름의 현판을 달아 구분하였다. 사당인 문성공묘는 강학당 서북쪽에 담장으로 둘러싸여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소수서원 현판



강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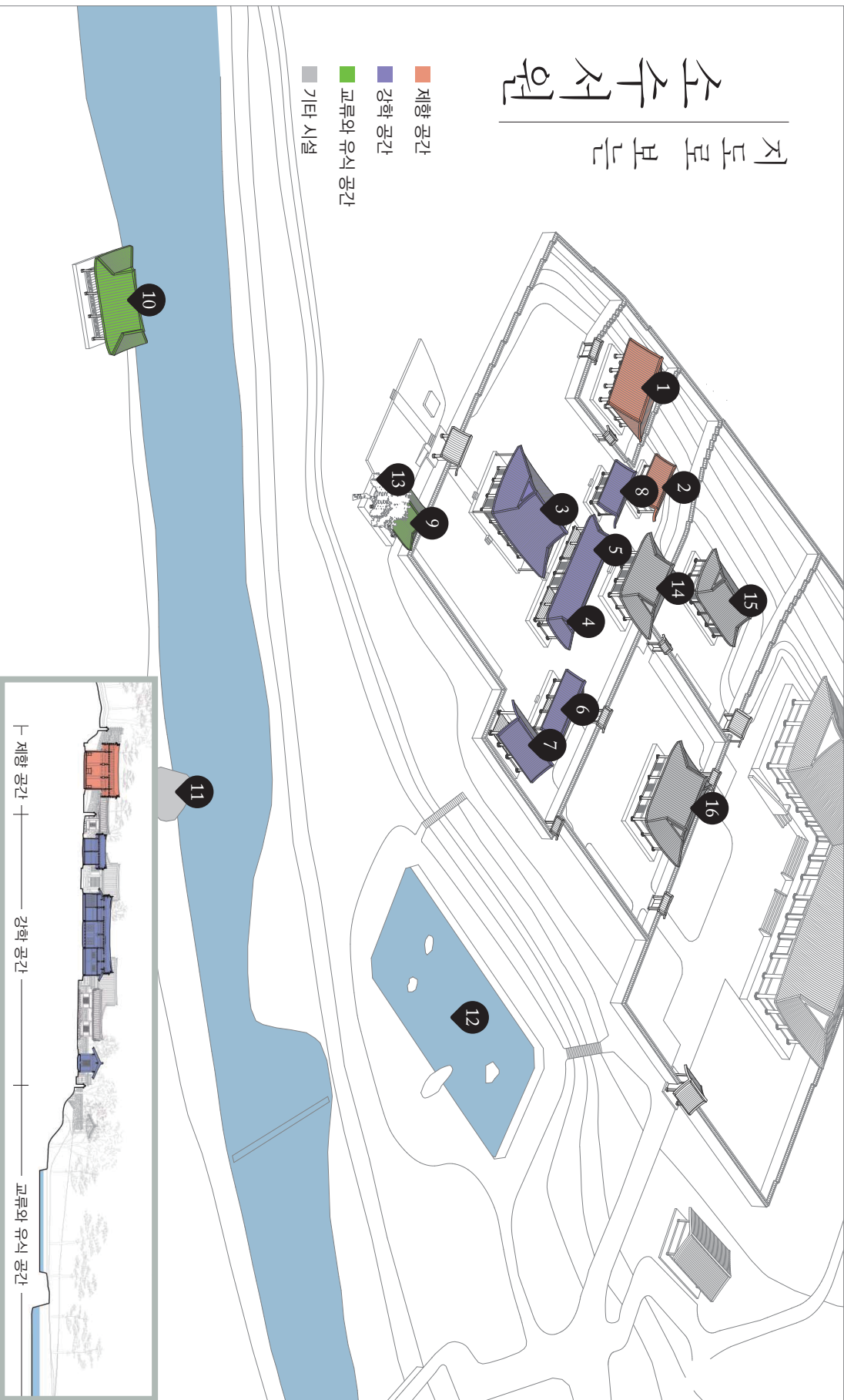
소수서원 (축제지)

제향 인물 및 의미

안향은 고려 말 문신이자 교육자다. 안향은 주자의 <주자대전>을 필사하여 고려에 성리학을 전파하고, 후학 양성에 노력하여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었다. 주세붕은 제향, 강학, 유식 공간 등 서원이 갖추어야 할 공간 구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교육 및 제향과 관련한 운영 규정을 처음 만들어 이후 건립한 서원의 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향을 올릴 때 안향의 업적을 기리고자 주세붕이 지은 '도동곡'이라는 경기체가를 노래한다.

주요 문화재

영주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제402호),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제403호), 소수서지 당간지주(보물 제59호), 대성지성문산왕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서종대천립 연회도(경북 유형문화재 제288호), 명종 어필 '소수서원' 현판(경북 유형문화재 제330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경북 유형문화재 제331호)



제향 공간

- 1 문성공묘 제향 인물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경기·비경기 제향 의례를 시행하고 있다.
- 2 전사청 제향에 사용하는 제기를 보존하고 있으며, 제향을 준비하는 건물이다.

강학 공간

- 3 강학당 강학 활동을 위한 핵심 건물로 유성의 강학을 위한 강당이다.
- 4 일신재 5 직방재 원장과 서원 임원의 집무와 숙소를 위한 건물이다.
- 6 학구재 7 기탄재 유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하던 건물이다.
- 8 장서각 서원 강학과 관련한 교재와 복관 등을 보관하던 곳이다. 이곳의 장서는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교류와 유식 공간

- 9 경림정 서원의 교류와 유생들의 유식을 위한 정자다.
- 10 취한대 서원의 교류와 유식을 위한 정자다.
- 11 백운동 경자재의 경림정 맞은편에 위치하며, 성리학의 의미를 깨닫도록 성리학 개념 중 하나인 '경(敬)'자를 새겨하였다.
- 12 박창지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한 인공 연못이다.

기타 시설

- 13 보호수 500년 된 은행나무로 이곳이 학교임을 나타낸다.
- 14 영정각 소장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에 신축한 복조 건물이다.
- 15 고좌사 서원 운영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 16 사료전시관 서원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